

ETF도 반도체 베팅... 삼성전자·하이닉스 '투톱' 집중

‘TIGER TOP10’ 총 4098억 유입
자산운용사 관련상품 경쟁 본격화
일부상품 채권 혼합해 안정성 보완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자금이 반도체로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상품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투자자와 자산운용사 모두 ‘반도체 베팅’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25일 코스콤ETF CHECK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상품은 ‘TIGER반도체TOP10’으로 총 4098억원이 몰렸다. 이외에도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2054억원), ‘RISE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1410억원)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지수 추종 아니면 반도체 상품 위주로 자금 유입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증시에서도 서학개미(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들이 이달 들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



ChatGPT로 생성한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집중되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관련 이미지.

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볼 3X’ ETF(SOXL, 12억7033만달러)였고, 같은 기간 홍콩 증시에서도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XL2CSOPHYNIX)를 275만달러 사들였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반도체 ETF 상품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

중이 높은 상품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자산운용사들도 ‘반도체 ETF’ 경쟁에 들어선 모습이다.

지난 17일 신한자산운용은 반도체 투톱의 편입 비중을 50% 수준까지 높인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를 신규 상장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25%씩 편입하고 SK

스퀘어를 15% 담는다. 당초에는 두 종목의 노출도를 65%까지 올렸다고 홍보했으나, 다소 과도한 표현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식적으로 정정하고 나섰다.

결과적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에 몰린 자금은 2054억원으로, 해당 기간 중 4번째로 많은 자금이 들어왔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그룹장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와 전례 없는 공급 제약 속에서도 설비 증설은 단기간에 쉽지 않은 구조”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번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적 기반의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판단이다.

반도체 집중상품의 라인업도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달 KB자산운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25%씩 담고, 나머지 50%는 단기 국고채에 투자하는 혼합형 ETF인 ‘RISE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을 선보였다. 해

당 상품 역시 국내 채권혼합형 ETF 가운데 최단기간 5000억원을 돌파하며 성과를 보였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도 ‘KODEX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 ETF’ 상장을 위한 상품 코드 등록을 마쳤다. 이달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상장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두 운용사 간의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삼성자산운용은 현재 삼성전자와 채권을 혼합한 ‘KODEX 삼성전자채권혼합 ETF’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반도체 투톱을 모두 묶은 채권혼합형 상품은 없다. 상품의 구조가 거의 동일한 만큼 ‘수수료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들의 ETF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흐름을 따라가는 테마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상품 구조와 구성 종목이 비슷한 유사ETF들이 반도체 섹터에서 만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투자전 위험 한눈에... 부동산펀드 공시 개편

금감원, 부동산펀드 공시서식 개정
정보 제공·운용사 책임 강화 유도

해외 부동산펀드 투자 과정에서 운용사의 실사 내용과 손실 가능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깜깜이 설계’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는 투자설명서 단계부터 실사보고서와 손익구조, 최악의 손실 시나리오까지 의무적으로 공개되면서 투자자가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부동산펀드의 설계·제조 단계에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시서식을 개정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상품 설계 단계부터 투자자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과 운용사 책임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운용사는 투자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지 실사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의 보고서뿐 아니라 자체 점검 내역과 내부통제부서의 평가 의견을 함께 공시해야 한다. 해당 내용에는 대표이사, 준법감사인, 위험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하도록 해 책임 소재도 명확히 했다.

펀드의 손익구조도 보다 직관적으로 공개된다. 부동산 가격 변동과 대출 조건 등을 반영한 손익성과 그래프를 통해 투자자가 손실 가능 구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금리 상승이나 공실률 악화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손실 규모를 가정한 스트레스 시나리오도 의무적으로 제시된다. 배당률이 0%로 떨어지거나

투자원금의 절반 또는 전액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극단적 상황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운용사의 자체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상품 설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자는 실사보고서와 손익 그래프, 시나리오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투자 위험을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금융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에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퇴직연금 수익률 차별... 금감원 점검 착수

퇴직연금사업자 준법감시 설명회
사업자 선관주의 의무 이행 당부

#.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김모 씨는 퇴직연금 계좌에 쌓인 돈을 수년째 그대로 두고 있었다.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같은 상품에 재가입했지만,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 뒤늦게 확인해보니 같은 시기 대기업 가입자에게는 더 높은 수익률 상품이 제공되고 있었다.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자산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업계 전반의 관행 점검에 나섰다. 퇴직연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단순 상품 판매를 넘어 ‘수익률 관리’와 ‘가입자 보호’ 중심으로 사업자 역할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퇴직연금사업자 준법감시 설명회를 열고 최근 검사에서 확인된 주요 지적 사례를 공유하며 사업자들의 선관주의 의무 이행과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이번 설명회는 은행·증권·보험사 등 46개 퇴직연금사업자의 준법감시인과 실무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검사 방향과 중점 점검사항도 함께 안내됐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들이 확인됐다. 우선 일부 사업자는 판매 물량이 제한된 고수익 상품을 대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정윤 기자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ETF 적립식 도입

적립식 투자 서비스 범위 확대

미래에셋증권은 효율적인 연금 자산 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퇴직연금 ETF 적립식(연금 모으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ETF 적립식 서비스’는 종합계좌와 중개형 ISA, 개인연금 계좌 대상으로 운영됐지만, 이번 출시를 통해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까지 범위가 확장됐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은 적립식 투자 서비스 범위를 전 연금 계좌로 확장하며 자산관리 체계의 완결성을 강화했다.

미래에셋증권의 ‘ETF 적립식 서비

스(연금 모으기)’는 가입자가 지정한 종목을 정기적으로 자동 매수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매수 주기(매일·매주·매월)와 금액 또는 수량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최소 신청 금액은 1만 원으로, 소액으로도 자산배분 투자가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영업점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M-STOCK’에서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는 특히 DC 가입자에게 유용하다. 일시 유입 자금을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매수하도록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고 매수 평균 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매번 직접 주문을 넣어야 하는 수고로움도 덜 수 있다.

또한 ‘포트폴리오 단위 매수’ 기능도 도입해 최대 10개 종목을 하나의 묶음으로 설정해 간편하게 분산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했다. ‘연금 모으기 탐험’ 서비스를 통해 다른 투자자들이 많이 모이는 인기 종목과 실시간 투자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가이드도 제공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매수 시점을 고민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드리고, 더 편리하게 연금 자산을 관리하실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고객을 위해 존재한다”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가입자의 필요를 먼저 읽고 그 목소리에 응답하는 책임 있는 연금 파트너로서 역할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지난 24일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열린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및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에서 세번째부터) 권용우 하량대표, 이영석 KICPA 지역투명성위원회 총괄부위원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공회, 자립준비청년 금융·재무교육 지원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역투명성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공익법인 하량(이하 하량)과 지난 24일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및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

혔다.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돕고, 이들을 지원해온 하량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허정윤 기자